

사회

끝날까지 이전투구 선거판

6·2 지방선거 마지막날까지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후보자 간 금품살포 주장과 상호 비방, 고소·고발 등 과열 흔적선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순천경찰은 1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김모(여·37)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오전 11시에 순천시 연향동 일대에서 '노 후보가 재임 시절 최측근에게 1200여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무가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노 후보의 연설원인 이홍재 도의원의 장애인 차별발언을

순천,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4명 체포 장성, '돈 살포' 여부 후보들 고발 사태 강진, 마을이장들 '저녁식사' 날선 공방 광주, 교육감 후보 사무장 등 고발 당해

규탄한다'라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성명서를 무가지와 함께 배포하다가 노 후보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노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은 이날 순천시 연향3지구 B아파트 1층 출입구

에 불법 유인물이 대량으로 쌓여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무가지를 살포하던 김씨 등을 검거하는 한편 무가지·성명서 등 70여장을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유인물 배포 경위와 배경을 조사 중이다.

장성에서는 '금품살포' 여부를 놓고 민주당 군수 후보와 무소속 군수 후보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양수 민주당 후보 측은 1일 "무소속 이청 후보 선거운동원이 전날 오후 6시에 장성읍 유세현장에서 주민 12명에게 2만원씩을 살포하는 현장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청 후보 측은 "민주당 후보 측이 관세를 뒤집으려고 치졸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며 "사진에 찍힌 할머니가 택시비를 흔든 모습이라고 밝힌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강진군수 선거에서도 마을 이장들이 전날 모인 '저녁 식사'의 성격

을 놓고 고비고비를 넘겼다. 민주당 강진원 후보 측은 1일 "무소속 황주홍 후보 측이 특정 이장 등을 동원해 음식을 대접하다 경찰에 적발됐다"며 "이장들이 모인 자리에 황 후보 가족이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후보 측은 "사람들이 모인 식사자리가 있어서, 선거에 출마한 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형이 들려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당연한 권리지자 자원봉사 활동이다"고 반박했다.

강진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진면의 식당 2곳에서 이장과 주민 등 30여명이 저녁 모임을 한 사실과 이 자리에 황 후보의 형이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법정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모 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단체 등 2명이 광주시선관위에 적발돼 검체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후보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정사무원 5명 외에 추가로 6명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74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장 B씨는 지난 5월 초부터 팀장과 조장요원 120여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일당지급 및 선거사무원 채용을 약속한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이 돈의 정체는? 지난달 31일 장성역에서 열린 군수 후보 유세현장에서 손에 현금을 든 한 할머니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후보자간 '금품살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고용촉진장려금 6586만원 부당 지급

광주지방노동청 사업자 친족 등에 ... 감사원 적발

광주지방노동청 등이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해야 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자의 친족들에게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기관들은 또 부당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업무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광주지방노동청 관내 16개 사업장에서 신규고용촉진장

려금 6586만1920원을 사업자의 형·배우자·어머니·동생·사위 등 자신의 친족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자신의 친족을 고용하고, 광주지방노동청에 장려금을 신청해 141만여원에서 54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또 몰 초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음에

도 불구하고 부당수급 사업장에 대해 장려금 회수 조치에 나서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1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원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의 2~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친족의 경우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과 고용안정지

원금의 지원 없이도 취업이 가능해 고용보험법상의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며 "민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해 장려금을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하도록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광주지방노동청과 제주특별자치도·경인지방노동청 등이 모두 343곳의 사업장에 14억7592만226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옛 도청앞 광장 월드컵 응원도 못한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대책본부가 옛 전남도청 별관에 사과 현수막을 내걸었다. 붕괴사고로 인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응원전 장소도 서구 상무시민공원으로 변경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의 만취 추태' 문예회관장 경징계 할 듯

광주시는 1일 "한·중 수교 기념 중국 현지 공연을 위한 방문과정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문화예술회관장 문모씨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점을 인정해 경징계하기로 결정, 오는 2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8일부터 15일까지 광

주시립무용단과 시립관현악단을 인솔하고 중국 공연에 나선 문씨가 중국 정부 주최 만찬장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진상조사를 받았다. 경징계는 불문경고·견책·감봉 등이며, 과거 표창 수 상실적이 있을 경우 감경될 수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근영 빨치산' 발언 지만원

항소심서도 진중권씨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1일 보수논쟁 지만원 씨가 '문근영은 빨치산의 손녀'라고 쓴 자신을 비방한 진보 성향의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2008년 일부 진보매체가 문근영 씨의 기부행위를 두고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으로 30년 이상 옥고를 치렀다. 문씨는 마음도 착한데 집안도 좋다'고 보도하자 "좌익 세력들이 빨치산의 손녀인 문근영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 2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진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지씨의 상상력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당이 하루빨리 집권해서 이 불쌍한 노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지씨는 "인격도덕성 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진중권씨는 K씨의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달려온 남창진(33)과 주먹다짐을 한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036) 김중두



진도 해상에 女 변사체

1일 새벽 4시25분께 진도군 조도면 북송도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신안선적 9.7t급 낚시망어선 강성호 선장이 어망에 걸려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 목포해양경찰에 신고했다.

6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키 155cm에 반백의 짧은 머리로 발견 당시 검은색 옷, 흰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해경은 순천 여성의 지문을 채취, 신원을 파악 중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만취 40대 길 가던 여성 강제추행

○광주서부경찰은 1일 만취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김모(44·연구원)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3시30분께 광주서부 치평동 한 호텔 입구에서 귀가하던 K(여·23)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

○김씨는 K씨의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달려온 남창진(33)과 주먹다짐을 한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www.hanablight.com

개강 6월 1일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79=공무원 종합이론반 주·야간반 개설

전국유일 79= 단독반 매월 짝/홀수반 개강

7.4=합격문제풀이, 기능직실면직권면학, 소명직합격전문특강

심화단과 | 3교시 | 3교시 | 3교시 | 3교시 | 3교시 | 3교시

수석합격자 배출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